“영감 원천은 불교…‘노량’에도 불교 담았죠”

인터뷰 | 영화 ‘노량’ 김한민 감독

“치열한 100분 해전을 통해
완전한 항복 담아내려했다”
파계 무릅쓴 義僧 재조명돼야
원경 스님과 20년 동안 인연
‘관월’ 법명… 평소 관음기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23일 서울 북한산 심곡암에서 만난 김한민 감독(사진 오른쪽)이 주지 원경 스님과 함께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한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는 현재까지 총 13편이 확인된다. 이 중 김한민 영화감독이 선보인 이순신 3부작 〈명량(2014)〉 〈한산: 용의 출현(2022)〉 〈노량: 죽음의 바다(2023)〉는 이전의 이순신 주제 영화, 드라마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이전의 작품들이 주로 임진왜란이나 이순신 일대기를 다룬다면, 김한민 감독의 3부작은 명량해전·한산도대첩·노량해전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면면을 조명해냈다. 해전을 통해 인물을 조명하다보니 전투 장면이나 인물묘사들이 더 촘촘하고 입체적이다.

그랬기에 〈명량〉은 1700만 명 관객 동원이라는 레전드급 흥행을 기록했으며, 코로나 시국에 개봉한 〈한산〉도 727만 명을 스크린으로 불러모았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노량〉은 1월 25일 현재까지 452만 명을 동원했다.

1월 23일 서울 북한산 심곡암을 찾은 김한민 감독을 만났다. 영화 홍보로 바쁜 김한민 감독이 심곡암을 방문한 이유는 주지 원경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김한민 감독과 원경 스님은 20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막역한 사이다. 독실한 신심을 가진 김한민 감독은 원경 스님에게 ‘관월(觀月)’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원경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달에 비교한다. 김 감독이 진리를 향하는 구도심으로 영화를 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 ‘관월’이라는 법명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한민 감독은 “영화감독 데뷔 전 여러 부침을 겪고 있을 때 원경 스님과 인연이 됐다. 좌선대에 올라 참선하고, 심곡암에서 시나리오 작업도 했다”며 “조계사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화계사불교대학을 다녔다. 요즘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관음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당히 불연(佛緣)을 밝히는 만큼 김한민 감독은 자신의 작품 기저에는 ‘불교’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명량〉에서 이순신(최민식 분) 장군이 죽어가는 장병들을 바라보며 “이 쌓인 원한을 어이할꼬”하는 장면이나, 〈노량〉의 이순신(김윤식 분)이 외치는 “더 큰 원한을 막아야 한다” “저들을 이대로 보내면 더 큰 원한이 쌓이게 될 것”이라는 대사가 그렇다.

김한민 감독은 “영화에서 ‘원한’은 복수나 혐오의 감정이 아니다. ‘원한’ 자체를 걱정하는 이순신 장군의 포용력을 담아내려 했다”며 “호국불교에서 보이듯 ‘호국’의 개념은 단순히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런 불교적 가르침과 개념들을 영화에 녹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물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제의 역사와 사건을 지금의 사람들이 리마인딩하며 소통을 이어갔으면 해서”라며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저의 역사의식과 안목은 불교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순신 3부작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에 대해 김한민 감독은 마지막 작품인 〈노량〉을 꼽았다. “끝까지 쫓아가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순신 장군의 ‘완전한 항복’의 의미를 영화 속에 담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노량해전 전투 장면을 153분 러닝타임 중 100분 가량 할애한 이유도 죽음을 불사한 이순신 장군의 치열함을 묘사하기 위해서다.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장군의 완전한 항복은 완벽한 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조선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뤄졌으면 일제강점기나 남북분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한민 감독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는 7년 전쟁에서 활약한 의승(義僧)들의 활약도 재조명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영화 〈명량〉과 다큐 〈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해〉에서 의승수군의 활약을 조명한 바 있다.

김한민 감독은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의승군들이 활동한 것은 유례가 없다. 호국불교라는 우리나라 불교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며 “파계를 무릅쓰고 칼과 창 등 병장기를 들었던 승군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3부작을 마무리한 김한민 감독의 다음 주제도 ‘역사’다. 현재 계획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을 무력이 아닌 정치외교전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대한제국기의 이야기도 구상 중이다.

“제가 역사를 다루는 이유는 과오를 되짚고, 이를 바르게 바라봤으면 해서입니다. 영화라는 매개체로 감독은 관객과 첨예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과정을 즐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노량〉도 불자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하.”

“천태종 발전에 새 전기 마련하겠습니다”

김형동 국힘 비대위 비서실장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취임
1월 21일 서울 관문사서 봉행
덕수 스님 “희생 정신 가져라”



천태종 신임 중앙신도회장으로 임명된 김형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국회의원·경북 안동시 예천군·사진)이 취임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21일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로원 간사 도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부의장 경천 스님 등 종단스님들을 비롯해 박성중·이헌승 국회의원, 최호정·이종배 서울시의원, 최승용 경기도의원, 전국 지역사찰 신도회장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르고 밝고 풍요롭게 하는 종교, 인간의 생활을 바르고 밝고 풍요롭게 하는 정치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자비와 지혜, 평등과 자유의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도 임하길 바란다”며 “중앙신도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종단과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훌륭한 중앙신도회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김형동 신임 중앙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내며 종단의 중흥을 이끈 대충 대종사와의 인연담을 소개한 뒤 “종단의 새로운 신도회를 구성하고, 다시 한 번 종단 발전의 전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중, 애국, 호국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바른 국가관을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하며 중앙신도회장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수시로 관문사를 찾아 신도님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종단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동 회장은 1975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했으며, 해동사 어린이회와 청년회에서 활동한 천태불자다. 2002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시 예천군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원내부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강화 전등사, 올해 첫 미래불자 장학금 전달

1월 24일,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1000만원 쾌척… 10명에 전달돼
장학생에 신입생 4명 포함 ‘눈길’
주지 여암스님 “지속 후원” 약속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올해 첫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사진〉

이번 장학생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신입생들이 포함돼 있어 인재불사 원력에 의미를 더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는 1월 24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강화 전등사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 총무국장 지불 스님, 포교국장 남룡 스님과 유변성 종무실장, 신도 2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학교 측에서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성정석 대외협력처장과 전등사 장학생 10명, 장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



이날 57회를 맞은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강화지역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특히 장학생 10명 중 4명은 올해 3월 입학이 예정된 신입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불교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대학에 진학할 때 보다 적극적인 신행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신입생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동국대 장학제도 중에서도 가장 신의와 권위가 있는 장학금이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인연으로 전등사를 자주 찾고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이번 장학기금 전달식을 계기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여암 스님은 “동국대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이라는 뜻 깊은 불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 지역사회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여법하게 정진해 나가는 것이 불자들이 퍼져나가는 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학생 청년 포교를 위해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판매합니다.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2월말까지 행사중입니다.
신제품 인등 신제품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주문제작 합니다.
수제부적 50장 20,000원씩
(국산)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2024년 신년맞이 행사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70,000원
5일초 24개 75,000원
3일초 40개 75,000원
1일초 100개 85,000원
15일초 12개 10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50,000원
15일 70,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중.(기존 불상 가능) ※3자기준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천불이상은 11,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 검색 NAVER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대표번호 : 054-762-8200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문의전화 : 010-9748-3366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